

Research Article

조선 최초의 가삼 재배지에 대하여

The first region of ginseng cultivation in the Joseon dynasty

고승태

Seungtae Koh

초록

인삼은 예로부터 연명(延命)의 약물로 분류된 상약(上藥)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지닌 약성에 따라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었으며, 특수계급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인삼 수요가 다른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그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 멸절(滅絶)되어 채취하기가 어렵게 되어 자연산 인삼으로는 공급의 한계에 이르게 되자, 인삼 공급 방법은 힘든 자연산 인삼의 채취보다는 가성비 높은 가삼 재배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인삼종주국인 우리나라의 가삼 재배 시기에 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첫 재배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삼 재배 관련 자료의 정리를 통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가삼 재배지에 관한 정리와 고찰을 하였으며, 여기에 인용된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임원십육지, 오주연문장전산고, 중경지, 증보문헌비고, 인삼사 등이다. 정리와 고찰의 결과, 조선 시대 최초의 가삼 재배지는 영남지역으로 특히, 풍기면(현재의 경북 영주시 풍기읍)으로 추측된다.

주제어: 인삼 재배, 인삼 재배 역사, 인삼 재배 지역, 가삼 역사

Abstract

Ginseng, also known as Insam, has solidified its status as one of the supreme drugs classified as life time expansion drug since ancient times and was used as a panacea based on its pharmaceutical effectiveness. The demand for ginseng rapidly increased as the demand for ginseng, which targeted only noble class people, expanded to other social class people. Accordingly, the wild ginseng supply reached its limit due to the extinction caused by indiscriminate harvesting and the difficulty of harvesting, and thus the ginseng supply method shifted to the cultivation of high-priced ginseng rather than complicated wild ginseng foraging.

Although the timing of ginseng cultivation (also called gasam) in Korea has been studied, the research on the first cultivation area has not been reported yet. In this study, we critically reviewed Korea's first ginseng cultivation site by arranging data related to ginseng cultivation, and the historical data cited here include Joseon Wangjo Sillog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Imwon Gyeongjeji (The Mid-19 Century Encyclopedia Koreana on Rural Living, Edible plants and Herb Volumes), Oju Yeonmun Jangjeon Sango (An Encyclopedic Writing during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Junggyeongji (The Junggyeong Town Chronicle), Jeungbo Munheon Bigo (The largest encyclopedia of Joseon

* 동양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Professor, Dept. of Bio-Chemical Eng., Dongyang University)

E-mail: kohnet@dyu.ac.kr

Dynasty), Insamsa (The Ginseng History) and etc. As a result of data assortment and critical review, the first ginseng plantation in the Joseon Dynasty resulted in the Yeongnam region, and in Yeongnam region, I have no choice but to conclude that it is Punggi-myeon (currently Punggi-eup, Yeongju-si, Gyeongbuk)

Key words: *Panax ginseng*, ginseng cultivation history, ginseng cultivation region, gasam history, cultured ginseng history

I. 들어가며

선도(仙道) 사상의 복식(服食) 영향을 받은 본초학(本草學)이 형태를 갖추어 가면서 인삼은 연명(延命)의 약물로 분류된 상약(上藥)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지닌 약성에 따라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었으며, 특수계급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인삼 수요가 다른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그 인삼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 멸절(滅絶)되어 채취하기가 어렵게 되어 자연산 인삼으로는 공급의 한계에 이르게 되자, 인삼공급 방법은 힘든 자연산 인삼의 채취보다는 가성비 높은 가삼 재배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산양(山養)의 단계를 거쳐 농토에 본격적으로 삼포를 만들어 인삼을 재배하는 가삼(家蔘) 시대가 열리면서, 자연산 인삼과의 구별을 위해 가삼(家蔘)이라는 명칭이 새로이 생겨났으며¹⁾, 시일이 흐르면서 인삼의 자리를 확고히 지켜왔던 자연산 인삼은 그 명칭을 가삼에 빼앗기고 산삼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 인삼이란 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가삼이 인삼으로 불리게 되면서 가삼이란 명칭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결과론적으론 가삼 시대의 도래에 따라 대량재배가 가능하게 되면서 인삼수요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하나의 농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인삼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가삼 재배에 있어 최초가 되는 조선 시대의 가삼 재배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²⁾ 최초 재배지역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선 시대 최초의 가삼 재배지에 관한 연

구는 최초 가삼 재배 시기에 관한 연구와 동떨어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삼 재배지에 대한 자료 발굴과 정리를 통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가삼 재배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가삼 재배에 대한 기록

조선 시대의 가삼 재배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년도	사료명	비고
1790년		
1791년	朝鮮王朝實錄	정조실록
1797년		
1801~1845년	林園十六志灌畦志	서유구
1801~1867년	五洲衍文長箋散稿	이규경
1824년	中京誌	김이재
1903~1908년	增補文獻備考	김택영 등
1935년	人蔘史 4권 人蔘栽培篇	스카타
1849~1923년	人蔘頌	이흥로

1.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조선의 가삼 재배지 관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1.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4월 30일 경진 2번째 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鍾秀又啓言: "進上鹿茸價, 朝家添給之數, 繡啓中亦以爲過價之過價, 而鹿茸之漸益翔貴, 列邑之艱辛窘迫, 皆由於營主人, 都買輩同謀權利之致云. 朝家惠澤之因此輩操切, 闕而不行, 誠甚絕痛. 臣方待罪藥院, 聞羅蔘絕貴之弊, 亦由嶺營官屬, 都買輩權利操縱之故. 以五六倍之厚價, 而

¹⁾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 30권 14년 4월 30일 2번째 기사, 7월 25일 2번째 기사, 33권 15년 10월 20일 5번째 기사, 46권, 21년 2월 22일 1번째 기사 등

²⁾ Journal of Ginseng Culture, 57-66, Vol 1, March 2019, The Korean Society of Ginseng

進上所封, 皆是家蔘, 以致連次退却, 事極寒心. 方擬查實嚴懲, 而北道鹿茸都賈之弊, 御史既目覩, 依所請營底都賈輩, 查出刑配." 從之.....

김중수가 또 아뢰기를,

“진상하는 녹용값을 조정에서 보태준 액수에 대하여 어사의 서계에서도 역시 비싼 값 중에서도 비싼 값이라고 하였습니다. 녹용값이 점점 더 비싸지고 각 고을에서 고달르게 핍박당하는 것은 모두가 영주인(營主人)과 독점 상인들이 공모하고 영리를 독점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정의 혜택이 이들의 농간으로 인해 막혀서 시행되지 못하니, 참으로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신이 지금 약원(藥院)에서 일을 보면서 들으니, 나삼(羅蔘)이 극히 귀해지는 폐단 역시 영남 감영의 관속과 독점 상인배가 이권을 독점하고 조종하기 때문이며, 5, 6배의 비싼 값을 주고 사서 진상하는 것도 모두 가삼(家蔘)이기 때문에 계속 되짜를 맞는다고 하니, 일이 너무도 한심합니다. 지금 사실을 조사하여 엄히 징계할 계획이었는데, 북도에서 녹용을 독점하는 상인의 폐단에 대하여 어사가 이미 목격하였습니다. 소청에 따라 감영 근처의 독점 상인들을 조사해 내어 형장을 쳐 귀양보내소서.” 하니, 따랐다.

1-2.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7월 25일 계묘 2번째 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內醫院提調洪欉啓曰: "御藥事體, 何等嚴重, 而一自家蔘盛行之後, 慶尙, 原春兩道封進, 率多家蔘. 至於原春, 則必以家蔘, 層連疊付, 巧樣百出, 揆以事體, 誠極駭然. 自冬等封進時, 各別審擇, 俾無抵罪之意, 請申飭兩道道臣." 從之. 左議政蔡濟恭曰: "蔘政去益苟簡, 臣意則如關東等邑, 占一名山, 作爲蔘田, 環而封田, 如黃腸之例, 則不出十餘年, 其蔘將不可勝用矣." 上曰: "故相徐志修曾有此論, 而未果行矣." 臬曰: "產蔘莫如廢四郡, 而猶有犯境潛採之弊. 當此蔘政極貴之時, 蔘田雖封, 成效恐難期必矣."

내의원 제조 홍억(洪欉)이 아뢰기를,

“어전에 쓰는 약에 관한 일은 이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한번 가삼(家蔘)이 성행한 뒤로는 경상도와 원춘도(原春道)에서 봉진한 것이 대부분 가

삼입니다. 특히 원춘도의 경우는 가삼을 첩첩이 덧놓아 온갖 교묘한 방법을 내었으니, 일의 체모를 헤아려 보면 실로 해괴하기 그지없습니다. 겨울 분을 봉진할 때부터는 각별히 살펴 선택함으로써 죄에 저촉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두 도의 감사에게 신칙하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인삼에 대한 정사가 갈수록 구차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관동 등의 고을에 하나의 명산을 인삼밭으로 만들고 빙 둘러 봉진(封田)하기를 황장목(黃腸木)의 예처럼 한다면 10년이 못 되어 인삼을 이루 다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죽은 정승 서지수(徐志修)도 일찍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하자, 홍억이 아뢰기를,

“인삼이 생산되는 곳으로는 폐사군(廢四郡)만 한 곳이 없는데 여전히 경계를 침범하여 몰래 캐가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삼이 극히 귀한 때에는 인삼밭을 봉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3. 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 8월 9일 정사 1번째 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梁山郡守南鶴聞上疏曰: 嶺南古所稱產蔘之鄉, 而比來山蔘漸貴, 家種成風. 今到本郡聞, 春等蔘三次見退於藥院. 詰問其由, 則該吏見欺於蔘商, 置取山家合造者, 以致屢退, 未稍則買得於京局而封納云. 不但本邑爲然, 一道貢蔘之邑, 皆從京局中得來, 而覓取於本鄉者, 絕無而僅有. 昔日所饒, 今焉猝貴, 生齒日蕃, 民食孔艱, 深林巨谷, 斫畚燒炭, 仙草不生而然歟? 售利稷田, 憚勞涉險, 採者漸稀而然歟? 抑或恐被官府土豪之勒索, 不賣本鄉, 直走京肆而然歟? 一兩重蔘, 四百緡錢, 其價可謂極矣. 此是責出於民間者, 情債雜用, 每至百餘金, 若或見退, 所費不啻倍蓰, 則依例加徵於所謂藥保藥漢等. 海隅窮黎, 剝出心頭之肉, 洛下富賈, 倍售箱中之貯, 此臣所常憤悶者也. 頃聞以嶺南蔘弊, 有京作貢之議, 而尚未果行. 臣未知有何掣礙之端, 而試以本邑言之, 大小民人皆以爲, 京貢設行然後, 御藥始

乃無弊封進, 嶺民亦可少得支保.

양산 군수 남학문이 군사에 관한 폐단 등을 상소하다. 영남은 예로부터 산삼이 생산되는 고장으로 일컬어져 왔으나, 근래에는 산삼이 점점 귀해져 집에서 심는 것이 풍속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본 고을에 부임하여 들으니 춘기에 바칠 산삼이 세 차례나 약원(藥院)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고 하기에, 그 까닭을 물으니 담당관이 산삼 상인에게 속아 산삼도 가삼도 아닌 것을 사서 바쳤기 때문에 누차 퇴짜를 맞았고 결국에는 서울 약국에서 사서 바쳤다고 합니다. 비단 본 고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도내의 산삼을 바치는 고을은 모두 서울 약국에서 구해오고, 본 고장에서 찾아내 오는 것은 전무하거나 어쩌다 간혹 있는 형편입니다. 옛날에는 흔하던 것이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귀해진 이유는 인구가 불어나고 식량이 어려워 깊은 숲과 큰 골짜기에 화전을 일구고 숲을 굽는 바람에 선초(仙草)가 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벼농사에 이익을 보고 험한 산에 드나드는 수고로움을 꺼려 산삼 캐는 자가 점점 드물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혹시 본 고을 관청이나 토호들에게 강제로 탈취당할까 두려워서 본 고장에서 팔지 않고 곧바로 서울 점포로 달려가기 때문인지 모를 일인데, 1냥쯤의 산삼값이 돈으로 4백 꿩이나 되니 그 값이 극히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에서 채출하는 경우에는 관아에다 바치는 뇌물 등 잡비가 매번 1백여 금씩이나 되고 만약 퇴짜라도 맞으면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날 뿐만이 아니며 으레 이른바 약보(藥保)나 약한(藥漢) 등으로부터 그만큼 받아내곤 합니다. 그러므로 해변의 궁한 백성들은 염통의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되고, 서울에 사는 부유한 장사치들은 돈 상자의 저축을 몇 배로 불리게 됩니다. 이는 신이 항상 분개하여 안타까이 여기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들으니, 영남 지방의 삼 폐단으로 인하여 서울의 공물로 만들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신은 무슨 구애되는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삼아 본 고을을 놓고 말하면 모든 백성이 다 말하기를 '서울의 공물로 만들어 시행한 뒤에야 어약(御藥)이 비로소 폐단 없이 봉진되고 영남의 백성들 또한 좀 지

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1-4.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2월 20일 乙丑 1번째 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左議政蔡濟恭白上曰: "蔘雖靈草, 亦可以人力培養, 嶺南家種之法可效. 宜令關西道臣, 申飭各邑舉行.

좌의정 채제공이 상에게 아뢰기를, ... "삼이 영묘한 약초이긴 하지만 역시 사람의 힘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므로, 영남 지방에서 집에서 심어 기르는 방법을 배울 만합니다. 평안 감사에게 각 고을에 신칙해서 거행하도록 하소서." 라 하였다.

1-5.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2월 22일 계사 3번째 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備邊司進華城富戶帽蔘節目

一, 兩南家植蔘, 近漸豐盛, 交易買賣, 作一生業. 今此移居人, 多是自前爲物主者, 無論官帽家蔘, 非華城物主與差人, 毋得直買於本地, 各處商賈, 亦皆交易於華城.

비변사가 올린 화성의 부호에 대한 모삼절목

一, 양남(兩南)³⁾ 지방의 집에서 심는 삼은 근래에 점차 풍성해져서 교역과 매매가 하나의 생업이 되고 있다. 이번이 이거하는 자들은 대부분 전에 물주(物主) 노릇을 하던 자들인데, 관모(官帽)와 가삼을 막론하고 화성의 물주와 차인(差人)이 아니면 본지(本地)에서 직접 사지 못하도록 하고 각처의 장사꾼들도 모두 화성에서 교역하도록 한다.

조선왕조실록 외로 가삼의 최초 재배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관휴지(灌畦志)⁴⁾

정조(正祖) 때 서유구(徐有榘)가 저술한 위의 자료 인삼 조항에는 아래와 같이 가삼의 정의와 가삼의 최초 재배지를 영남이라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上以貢御, 下給閭閻, 南輸於倭, 北市於燕, 用殷價翔, 爲國重貨, 近自數十年來, 山產漸罄, 而家種之法, 作始于嶺

³⁾ 영남과 호남

⁴⁾ 식용식물과 약용식물을 다루면서 각종 산나물과 해초소재약초 등에 대한 명칭의 고증, 파종 시기와 종류 및 재배법 등이 기술되어 있다.

南, 遍于國內, 謂之家參, 所以別於山產也.

상등품은 공헌에 사용하고, 하등품은 일반에게 공급하며, 남으로는 왜(倭)에 수출하고 북으로는 연(燕, 북경)에 판다. 인삼의 수요가 급증하고 그 값이 급격히 상승하여 나라의 중요한 재화로 된다. 최근 수십 년 전부터 산출량이 점차 없어져서 가종(家種) 방법이 영남(嶺南)에서 시작해서 국내에 널리 퍼지고 있다. 이것을 가삼(家參)이라 불러 자연 인삼과 구별하려 했다.”

3.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이규경(李圭景)가 19세기에 편찬한 이 자료의 인삼시문 변증설(人蔘詩文辨證說) 중에 기술한, 我東家參, 創自正廟初年, 至純廟中葉始盛. 遍于一域, 今則其賤如桔梗矣
우리나라의 가삼은 정조(正祖) 초기에 시작되어 순조(純祖)의 중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한 지역에 널리 퍼진 후 번창하여, 지금은 오히려 그 값이 도라지와 같다...운운.

4. 중경지(中京誌)

1824년 김이재(金履載)가 편찬한 중경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時全羅道同福縣女子採於山得蔘子種之田有崔姓者傳而蕃殖之此家蔘之名之始也崔以東蔘爲天下所貴潛齎售于清人清人之病於鴉烟者用蔘爲藥故得我蔘甚珍之然服之亦往往遇毒崔知其故後則蒸而售之大獲其利富甲一道此又紅蔘之始也崔既致富自以利不可久專授于譯人譯人售諸燕市果亦有利乃告其狀于政府請造蔘納稅以補司譯院之用且請立禁政府許之定.....

이때 전라도 동북현(同福縣)의 어떤 여자가 산에서 인삼 씨앗을 따서, 그것을 밭에 심었다.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를 전해 받아 번식하였는데, 이것이 가삼이란 이름의 시작인 것이다. 최씨는 모든 사람이 동삼(東蔘)을 귀하게 여겼으므로, 비밀리 청나라 사람에게 팔았다. 청나라 사람 중에서 아편 연기에 병든 자들이 인삼을 약으로 사용하였기에 인삼을 얻으면 아주 진귀한 일로 여겼다. 또한, 인삼을 복용하고 때때로 독성에 의한 부작용을 일으켰다. 최씨가 그것을 한 후, 인삼을 찌서 팔아 큰 이익을 얻어 전라도 제일의 부자가

되었다. 또한, 이것이 홍삼의 시작인 것이다. 최씨는 갑부가 되자, 스스로 이익을 더 차지하지 않고, 역인(譯人)에게 전수하였다. 역인은 모두 연시(燕市)에 팔았더니, 과연 이익을 얻었다. 그리하여 그 상황을 정부에 고하고, 조삼(造蔘) 납세로서 사역원이 걷어 이용할 것을 청하고, 아울러 정부에서는 이를 허락하였다.

5.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903년부터 1908년에 걸쳐 김택영 등이 편찬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도 중경지와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 중경지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경지의 내용과 비교하면 2개의 오자와 3개의 탈자가 있지만, 대의(大意)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문만 게재한다.

時全羅道同福縣女子採於山得蔘于種之田有崔姓者傳而蕃殖之此家蔘之名之始也崔以東蔘爲天下所貴潛齎售于清人清人之病於雅烟者用蔘爲藥故得我蔘甚珍之然服之亦往往遇毒崔知其故後則蒸而售之大獲其利富甲一道此又紅蔘之始也崔既致富自以利不可久專授于譯人譯人售諸燕市果亦有利乃告其狀于政府請納稅補司譯院之用且請立禁政府許之定.....

6. 인삼사(人蔘史)

T. Imamura는 1935년에 편찬한 인삼사 2권 인삼정치편에서 전라도 동북현의 가삼 재배에 관해 기술한 중경지와 증보문헌비고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동북현의 가삼 재배 기록은 하나의 전설일 뿐이라고 했다.⁵⁾

- (1) 위의 여자가 산에서 인삼 씨앗을 따서 심었다는 것은 어떤 여자가 산신령에게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빌었고, 그 계시에 따라 인삼 씨앗을 얻어 그것을 심은 것이 종삼(種蔘)의 시작이 다는 것은 경성(京城)개성(開城)풍기(豐基) 등에 퍼져 있는 전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내용은 동북(同福) 부근에서는 전해 내려오지 않는다.
- (2) 가삼의 시작은 경상도 또는 전라도의 산촌에서 비밀리 시작한 것으로서, 오늘에 와서는 그 최초의 장소는 알 수가 없다.
- (3) 최(崔)의 일족은 지금 동북(同福)의 인삼밭이 있는 모후산(母后山) 아래에 거주하였으나, 몹시 가난해

⁵⁾ 인삼사 2권 394~396쪽(원본), 434~435쪽(번역본)

서 백여 년 전에 부호였다는 전승(傳承)이나 증적(證跡)도 전혀 없다.

- (4) 이 시대에 있어 어용(御用) 상인이나 관청에 연고가 있는 상인 또는 통역 등 이외에는 북경(北京)으로의 인삼 밀무역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물며 전라도의 산촌에서 도(道)에서 이름이 날 정도의 부를 일구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5) 인삼을 찌서 만든 제품은 이미 청(淸)의 태조 시대에 만주에서 행하여졌었다. 조선에서는 선조(宣祖) 때 명(明)의 원군(援軍) 중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워 만들어낸 것으로 최(崔)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설(說)이다.
- (6) 아편(鴉片) 중독에 의해 성적 불능이 된 중국인이 홍삼을 복용하는 것은 지금도 행하여지고 있지만, 백삼을 복용하여 부작용(毒)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들 어본 적이 없다.
- (7) 역인(譯人)이 인삼을 취급하면서, 인삼 무역(일본, 중국)으로 이익을 얻은 유래는 아주 오래된 것이다. 역인(譯人)이 최(崔)에게서 그 무역 이권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망설(妄說)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T. Imamura는 1936년에 편찬한 인삼사 4권 인삼 재배편에서 여러 사료를⁶⁾ 바탕으로 “조선의 인삼재배는 경상도의 산간에서 산민(山民)의 손에 의해서 아주 비밀리에 소규모로 수십 근을 재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분명한 연월은 언제이며 창시자는 누구인지 또 어느 지역인지는 오늘에 와서는 흔적을 찾아낼 방법이 없다. 어찌서 이것을 비밀로 하였는가에 대해 언급하자면, 관변(官邊)으로부터의 주구(誅求)⁷⁾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에도 기인하였으며, 또한 재배한 것을 산삼(山蔘)이라고 속일 필요도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며⁸⁾,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상의 여러 서적에서 조선의 인삼재배는 경상도의 산속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차츰 근처의 마을로 퍼져서, 정조(正祖) 20년(1796년)경에는 전라도에도 전해진 것이

확실하다. 그 밖의 도(道)에는 순조(純祖) 시대에 이르러 점차 전해지게 되었다.”⁹⁾

7. 상전신제풍기군수주세봉공종식항간인삼(相傳愼齋豐基郡守周世鵬公種植巷間人蔘) 및 인삼송(人蔘頌)

경북 풍기에는 1541년 신재 주세봉이 풍기군수로 부임한 후, 중국으로의 사신 파견이나 중국 사신의 조선 방문 시기 전에 인삼채취를 위해 농번기조차 산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실정을 알고는 이를 해결하고자 심산에서 인삼 씨앗을 채취해와 항간에 파종하도록 하여 가삼 재배가 시작되었다는 상전(相傳)¹⁰⁾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료는 아직 밝혀진 것은 없다. 지금까지 주세봉군수가 풍기군에서 가삼재배를 시작하도록 하였다는 상전(相傳)의 근거로 1557년 단양군수로 부임하였던 금계 황준량이 주세봉공에 대해 찬(撰)한 군수주공선정비(郡守周公善政碑)의 비문(碑文)을 자주 인용(引用)하고 있다.

군수주공선정비(郡守周公善政碑) 원문(原文)¹¹⁾

公諱, 世鵬, 字景遊, 辛丑, 出守歲連世大飢, 全活甚多以治最贈秩 乙巳冬 召爲國子司成 公資.

粟寬仁學行純熟, 爲政敬老尊賢, 先教後 純推恕施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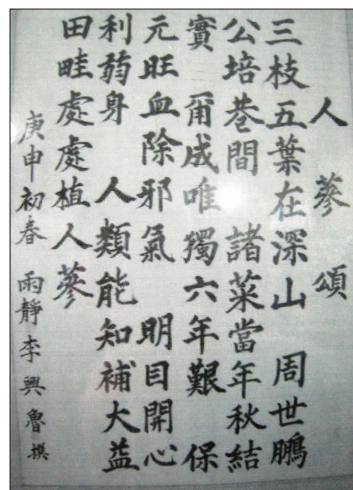


그림 1. 인삼송

⁶⁾ 증보문헌비고, 중경지,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 임원십육지(관휴지) 등을 말한다.

⁷⁾ 관청(官廳)에서 백성(百姓)의 재물(財物) 따위를 강제(強制)로 요구(要求)하여 빼앗음

⁸⁾ 인삼사 4권 인삼재배편 100쪽(원본), 114쪽(번역본)

⁹⁾ 인삼사 4권 인삼재배편 104쪽(원본), 117쪽(번역본)

¹⁰⁾ 전설이나 일화가 대대로 전해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인삼재배법이나 무예 등을 전하는 구전(口傳)과 구별하였다.

¹¹⁾ 풍기인삼협동조합 100년사, 179쪽, 2008

興利革? 一境愛載, 誠感心化 人興孝悌, 俗歸純厚至於新
 先成廟, 立文成祠, 振起斯文, 尤有功焉父勞言自 國朝來典
 成者莫能及, 今爲承政院都承旨 嘉靖 28(1549) 黃俊良撰.

이 상전(相傳)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료가 최근에 발굴되었는데, 우정(雨靜) 이흥로(李興魯)¹²⁾가 남긴 인삼송(人蔘頌)¹³⁾이 그것이다.

人蔘頌	인삼송
三枝五葉 ¹⁴⁾ 在深山	세 잎자루 다섯 잎은 깊은 산에서 자라는데,
周世鵬公 培巷間 ¹⁵⁾	주세봉공이 향간에 재배토록 하였 었다.
諸菜當年 秋結實	모든 채소류는 그해 가을에 다 자라는데
爾成唯獨 六年艱 ¹⁶⁾	유독 너는 6년을 어렵게 자라서
補元旺血 除邪氣	원기를 보하고 혈을 왕성하게 하여 나쁜 기운은 없애주고
明目開心 利弱身	눈을 밝게 하고 화를 삭여 약한 몸을 이롭게 하니
人類能知 補大益	몸을 보하여 크게 이롭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田圭處處 植人蔘	밭이랑 곳곳에 인삼을 심는구나.

III. 고찰

1. 정조실록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1-1. 나삼(羅蔘)이 극히 귀해지는 폐단 역시 영남 감영의 관속과 독점 상인배가 이권을 독점하고 조종하기 때문이며, 5, 6배의 비싼 값을 주고 사서 진상하는 것도 모두 가삼(家蔘)이기 때문에

1-2. 한번 가삼(家蔘)이 성행한 뒤로는 경상도와 원춘도(原春道)에서 봉진한 것이 대부분 가삼입니다.

¹²⁾ 1849~1923, 경북 풍기 인근인 봉화 법전 사람으로 퇴계 이황의 스승이자 숙부인 송재 이우선생의 12세손이다. 고종 때 효릉참봉(孝陵參奉)을 지냈다.

¹³⁾ 영주시 인삼박물관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파일로 2019년 12월 전달받았으나,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계속 조사 중이다.

¹⁴⁾ 삼지오엽(三枝五葉), 삼아오엽(三桠五葉)은 인삼을 말한다.

¹⁵⁾ 여기서 향간은 마을 사이의 밭을 의미한다.

¹⁶⁾ 가삼이 시작된 시대에도 6년근이 재배 인삼의 기준이 되었다.

1-3. 영남은 예로부터 산삼이 생산되는 고장으로 일컬어져 왔으나, 근래에는 산삼이 점점 귀해져 집에서 심는 것이 풍속으로 되었습니다.

1-4. 삼이 영묘한 약초이긴 하지만 역시 사람의 힘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므로, 영남 지방에서 집에서 심어 기르는 방법을 배울 만합니다.

1-5. 양남(兩南)¹⁷⁾ 지방의 집에서 심는 삼은 근래에 점차 풍성해져서 교역과 매매가 하나의 생업이 되고 있다.

이상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가삼 관련 내용 중에서 재배지를 암시하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발췌된 내용 가삼이 생산되는 주된 지역으로 영남과 호남을 함께 가리킨 것 1번 이외에는 모두 영남지역을 가리킨 것을 알 수 있다.

2.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관휴지(灌畦志)」에는 “최근 수십 년 전부터 산출량이 점차 없어져서 가종(家種) 방법이 영남(嶺南)에서 시작해서 국내에 널리 퍼지고 있다. 이것을 가삼(家蔘)이라 불러 자연 인삼과 구별하려 했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가삼 재배의 출발지가 영남이란 것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3.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우리나라의 가삼은 정조(正祖) 초기에 시작되어 순조(純祖)의 중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한 지역에 널리 퍼진 후 번창하여, 지금은 오히려 그 값이 도라지와 같다”라고 기술하여, 가삼 재배에 대해 지역 명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정 지역에서 널리 퍼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휴지(灌畦志)에 기술된 관련 내용과 다르지 않다.

4~5. 중경지의 내용과 증보문헌비고의 내용 사이에는 증보문헌비고의 내용에 2개의 오자(誤字)¹⁸⁾와 3개의 탈자(脫字)¹⁹⁾가 있으나, 대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문장에 나타난 주요한 내용으로는 조선에서의 가삼 재배는 전라도 동북에서 최씨라는 여자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과 홍삼 가공으로까지 발전하였으며, 그 기술을 역일들에게 전수하였고,

¹⁷⁾ 영남과 호남

¹⁸⁾ 오자(正誤) 于(子), 鴉(雅)

¹⁹⁾ 탈자 造蔘, 以

역원에서는 조삼(造蔘) 납세로서 사역원이 걷어 이 용할 것을 청하자, 정부에서는 이를 허락하였다는 내용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고증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으며, 특히 역원에서 청하고 정부에서 허가했다는 조삼 납세에 대한 사료는 찾을 수 있어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조사 내용	재배면적과 경작 인원(1936년 현재)
1 달성군	재배 시작 연도는 불명, 1932년경 쇠퇴하여 중단. 다시 시작하여 면적이 클 때는 500평, 적을 때는 50평	165평, 3명
2 군위군	재배는 대단히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그 연대는 알 수 없다. 옛날 토종으로 일명 영종이라 불렀던 산삼 종자를 영천군 신녕면 근처에서 갖고와 재배했지만, 도중에 개성 종자로 변경. 군위군은 300여 년 전에 재배를 시작했다는 전설이 있지만, 근거는 없음	266평, 12명
3 의성군	재배는 대단히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그 연대는 알 수 없다. 원래는 재래종을 재배했지만, 도중에 중단. 1921년경부터 1932년경까지 다시 10평 재배. 2,600평	3,704평, 15명
4 안동군	오래된 내용은 알 수 없음. 근년에 다시 재배	8,467평, 26명
5 청송군	오래전부터 재배했다지만 연대는 알 수 없음. 1896년경 중단. 1912~1926년부터 재개한 이래 많을 때는 3,000평, 적을 때는 500평을 오르내리거나, 또는 재배를 하지 않은 해도 있음	54평, 3명
6 영덕군	오래전부터 재배했다지만 연대불명. 중도 재흥 1912년경 폐절하고, 면적은 크지 않음	
7 영일군	오래된 내용은 알 수 없음. 1921년경에 600여 평 재배, 1926년에 중단했다 다시 시작	38평, 3명
8 경주군	오래전부터 재배했다지만 연대는 알 수 없음. 당초에는 나삼(羅蔘)이라 불리는 우량품을 산출했지만 오래전에 중단됨. 1915년경부터 자급용으로 소량의 재배를 하다가 점차 증가. 경주군은 1,300여 년 전인 신라 소성왕(799년) 때부터 재배를 시작했다는 전설이 있으나, 근거 없음	214평, 53명
9 영천군	옛날 재배했지만 연대는 알 수 없음. 1887년경 중단됨. 소와(昭和) 초년부터 다시 재배	320평, 16명
10 경산군	약 백여 년부터 재배되었지만, 주로 자급용으로 소량을 재배. 1926년경에는 30평이었으나 점차 증가	1,182평, 31명
11 고령군	기원은 알 수 없음. 작은 면적에 재배했으나, 1930년경에 중단	
12 청도군	1926년경에 재배 시작.	539평, 36명
13 성주군	1876년경부터 재배하여 일시적으로 금수, 가천 등의 면(面)에서 많이 재배한 이래 성쇠 있음	2,786평, 24명
14 칠곡군	근대에 시작하여 1921년경에 70평을 재배하였으나, 그 후 중단	
15 김천군	1887년경부터 시작. 1907년경 중단. 1912~1926년에 다시 재배한 후 점차 증가	7,122평, 97명
16 선산군	1922년에 300평으로 시작한 이래 확장	12,308평, 34명
17 상주군	옛날 재배를 하였지만 연대는 알 수 없음. 1912~1926년 중단, 1929년경 다시 재배	101평, 1명
18 문경군	재배의 기원이 500년 전이라는 전설이 있는데 믿을 근거는 없다. 동로면 명전리 생달리에서 아주 소규모로 토종을 처음 재배한 후 점차 확장. 1921년경 개성의 종자를 가져와 개량함	15,439평, 65명, 6개리(里)
19 예천군	풍기면(豊基面)은 기원이 가장 오래되며, 400년 전에 재배를 하였다는 전설이 있지만 믿기 어려우며, 그 이래 계속 재배함. 약 50년 전 개성사람으로 영양군수였던 이종식이 개성에서 씨앗을 가져오고, 개성의 재배법으로 점차 확장하여 성대히 되어, 조선에서 몇 안 되는 우량품의 산지로 되었다.	40,065평, 89명
20 영주군	약 80년 전 첫 재배 후 점차 성대해져 일시적이지만, 연간 백삼 5만근의 산출이 있었고, 점차 감소하다가 다시 성대	98,773평, 199명
21 봉화군	기원은 알 수 없음. 1922~1923년에는 200~300평 재배하다가 중단 또는 재식	1,180평, 8명
22 울릉도	약 50여 년 전 재배를 시작했지만 조금도 증가하지 않음	763평, 5명

고 찾을 수가 없으며,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도 T. Imamura가 인삼사에서 전설로 단정하며 내세운 근거에 대해서도 반박하기 어렵다.

6. T. Imamura는 인삼사를 통해 여러 사료(史料)를 근거로, 중경지와 증보문헌비고에 기술된 동북의 최씨에 의한 가삼 재배 내용이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으며²⁰, 조선왕조실록,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및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내용을 근거로 조선의 인삼재배는 경상도의 산속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근처의 마을로 퍼지면서 전라도에 전해졌고 그 후에 전국으로 퍼졌다고 정리하였다.

7. 군수주공선정비(郡守周公善政碑)의 비문(碑文)에서 주세봉공이 풍기읍민에게 인삼재배를 하도록 하였다는 상전(相傳)과 연계시킬 수 있는 내용은 “흥리혁폐(興利革弊(?))”뿐인데, 당시의 나라 법이 가삼 재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이기에 문적(文籍)으로 남길 수 없는 상황이라 우회적으로 찬(撰) 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이 흥리혁폐(興利革弊(?)) 4글자를 가삼 재배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별개 사료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인데, 그러한 뒷받침 없이 연계한 것은 무리한 전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나타난 이흥로의 인삼송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인삼송의 출처에 관해서는 당연히 계속 조사하여 자료로서의 확실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나, 이 시에 나오는 주세봉공이 풍기군수 봉직 시절에 군민들에게 자연 인삼의 종자를 채취해와 향간에 심도록 하였다는 내용은 지역에 돌고 있는 상전(相傳)을 뒷받침하여 풍기군의 가삼 재배가 주세봉공이 풍기군수로 봉직했던 시기에(1541~1545년) 풍기에서 인삼재배가 태동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인삼 종자는 일반 식물의 종자와는 달리 개갑된 상태에서 심지 않으면 발아하기 어려운 식물이라서 개갑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심으면 발아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는 일이며, 또 인삼은 6년을 자라야 한하는데, 약 4년이

라는 길지 않은 봉직 기간을 통해 주세봉 군수가 개갑에서 파종, 재배법까지의 전부를 기여했다고는 현실적으로 상상하기는 어렵다. 주세봉공의 인삼재배 기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초기적 인삼재배 시도는 심산에서 발견한 양삼²¹을 집 근처의 산이나 정원에 환경을 만들어 이식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²² 보아 아래와 같은 추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① 부임하기 전부터 인근 산에서의 가삼 재배가 어느 단계까지 비밀리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관(官)의 비공식적, 묵시적 허용
- ② 양삼(秧蔘)을 인삼(산삼)이 자라는 자연환경과 비슷하게 만든 향간으로의 이식을 지도
- ③ 개갑을 시키지 않은 상태로 씨를 심는 낮은 발아율의 초보적 재배를 지도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조선 시대 최초의 가삼 재배는 영남의 한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지역을 밝히기 위해서는 영남에서 조선 시대에 산삼(당시의 인삼)이 많이 산출된 지역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왜냐하면, 부족한 산출량에 대한 인삼 조공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삼 재배의 필요성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느꼈을 곳이기 때문이다.

영남에서의 최초의 가삼 재배지를 규명하기 위해, 1936년 T. Imamura가 조사한 내용에 전매국의 조사 및 군청 경찰서에 의뢰하여 조사한 내용을 종합한 기록²³ 중에서 영남인 경상북도의 가삼 재배지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검토해보면 T. Imamura가 예천군과 영주군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 데 풍기면을 예천군에 편입시키는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가 1923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은풍면(殷豊面)을 예천군에 편입하였지만, 풍기는 편입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풍기면의 재배 평수와 경작 인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예천군의 재배면적과 경작 인원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기여분을 영주군

²¹산에서 자라는 어린 산삼

²²인삼사 4권(인삼재배편) 원서 80쪽, 230~245쪽, 번역서 96쪽, 232~250쪽

²³인삼사 4권(인삼재배편) 원서 106~120쪽, 번역서 119~135쪽

²⁰인삼사 2권 394~396쪽(원본), 434~435쪽(번역본)

에 포함시키면 영주군의 당시 재배면적과 종사 인원의 규모가 당시 전국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908년 남한 최초의 인삼조합인 풍기삼업조합이 설립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경작 규모에 있어 풍기면을 포함한 영주군이 경북 내의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규모의 인삼 재배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왕실에서 선대(先代)까지 약국(藥局)에서 대부분 꼬리 끝을 약간 구부린 풍기 곡삼(曲蔘)²⁴⁾을 사용하였으며, 산삼(山蔘) 외에 풍기(豐基)에서 나온 인삼을 의료용(醫療用)이나 보건용(保健用)으로 사용하였다는²⁵⁾ 사실과 이흥로의 시에 힘입어 주세붕공이 풍기군수로 재임 때 가삼 재배를 견인하였다는 상전(相傳)을 더했을 때, 인삼의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남의 24개 부(府), 군(郡), 도(島)에서 가삼 재배를 최초로 시작한 곳은 가장 적합한 환경과 가장 오래된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풍기(豐基) 일 것으로 추측된다.

IV. 나가며

조선 시대의 가삼 재배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조선왕조실록을 정리하여 고찰해보면, 조선 시대 최초의 가삼 재배지는 영남지역으로 귀착되며, 중경지와 증보 문헌비고에서 언급한 전라도 동북현의 최초 가삼 재배설에 대해 T. Imamura는 역서 인삼사에서 사실적으로 반박하며 하나의 전설로 일축하였으며, 임원십육지와 인삼사 4권 인삼재배편에는 조선 최초의 가삼 재배지가 영남지역이라고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영남지역 내 최초의 가삼 재배지를 규명하기 위해, 1930년대 기록으로 남아있는 영남지역 22개 가삼 재배지 규모와 종사 인원에 관한 내용의 검토 결과에 조선 왕실에서

선대(先代)까지 약국(藥局)에서 대부분 꼬리 끝을 약간 구부린 풍기 곡삼(曲蔘)을 사용했다는 것, 사실에 가까워진 주세붕공의 풍기군수로 재임 때 가삼 재배 견인설과 풍기인삼조합이 남한 최초의 인삼조합이란 것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가삼 재배지는 풍기(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문헌

1. 자료

이흥로, 『人蔘頌』, (출처미상).

2. 고문헌

김이재, 『中京誌』, (1824).

김택영 등, 『增補文獻備考』, (1903-1908).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19세기).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검색일: 2019년 12월 31일).

3. 한국어 저작

고승태, 『인삼사 제2권 인삼정치편』, (고문당, 2015).

고승태, 『인삼사 제4권 인삼재배편』, (고문당, 2010).

고승태, 『인삼사 제5권 인삼의약편』, (고문당, 2015).

서유구 저, 노평규, 김영 역주, 『林園經濟志 灌畦志』, 2, (소와당, 2010).

4. 외국어 저작

T. Imamura, 『人蔘史』, vol. 2, (朝鮮總督府專賣局編, 1935).

T. Imamura, 『人蔘史』, vol. 4, (朝鮮總督府專賣局編, 1936).

T. Imamura, 『人蔘史』, vol. 5, (朝鮮總督府專賣局編, 1937).

5. 논문

고승태, 『동양에 있어서의 인삼재배 역사』, 『인삼문화』 1, (고려인삼학회, 2019), pp. 57-66.

Received: December 22, 2019

Revised: January 13, 2020

Accepted: January 20, 2020

²⁴⁾백삼(白蔘)

²⁵⁾인삼사 5권(인삼의약편) 원서 485~번역서 592~593쪽